

재래닭의 경영 및 판매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한성욱 · 박종수 · 오봉국¹ · 정선부¹ · 이규호¹

최연호¹ · 김재홍¹ · 여정수¹ · 하정기¹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A Research on Current Farm Management and Marketing Situation of Korean Native Chickens

S. W. Han, C. S. Park, B. K. Ohh¹, S. B. Chung¹, K. H. Lee¹, Y. H. Choi¹

J. H. Kim¹, J. S. Yeo¹ and J. K. Ha¹

College of Agricultu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305-764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get basic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native chicken industry by reviewing the current native chicken farm management and marketing situation of native chicken products(meat and eggs). The research was carried on the basis of the farm field survey covering 210 native chicken feeders out of 9 different local areas,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verage raising size of native chicken flocks of sample farms was 1,787 heads and about 50% of those farms raised less than 500 heads chickens for self-sufficiency or on the side.
2. Most farmers made the decision to start on feeding native chickens in small scale with small amount of capital without sound feeding program, and their decision was mainly influenced by recommendation of mass-media(19.5%) and neighbors(17.2%).
3. The average income per farm earned by raising the native chickens was 13,719 Won, and income per head of chicken was 8,800 Won.
4. About 40% of feeders expressed that the poor marketing management and lack of capital were the bottleneck to native chicken farm management.
5. About 70% of feeders evaluated the prospect of native chicken industry positively and so, about 60% of feeders hoped to expand the raising size in the future.
6. Most farmers directly made a bargain with marketer including middleman and enduser in selling the chicken products because there was not established special marketing system for native chicken products.
7. The sales age of native broiler was about 16~20 weeks and average body weight of broiler was 1.5~2.0 kg. And farm received price was not decided on the basis of each body weight or meat quality but only number of heads.

¹ 한국재래닭보존연구회 (The Korea Preservation of Poultry Antiquities Association)

8. The average first egg-laying age of chickens was about 165 days and average annual laying rate was only about 56%.
9. In order to develop the successful Korean native chicken industry, followings are recommended :
 - ① Reducing the production costs and increasing the productivity of native chickens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technolog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sound feeding program of native chickens and sufficient fund supply.
 - ② Orderly native chicken marketing and pric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give good vision about native chickens to farmers and to delight the consumers.
 - ③ The measures for product differentiation including meat quality and nutritional value of native chicken products against other improved chickens should be actively taken by feeders and government.

(Key words : Korean native chicken, production cost, productivity, product differentiation)

서 론

GATT의 UR협상이 타결되고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무한경쟁의 예외일 수 없는 우리나라의 양계 산업은 실로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양계 생산물의 대부분이 사실상 양계 선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종계와 원료사료에 의존되어 생산되고 있으며, 그렇게 생산된 생산물은 수입 양계 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에 약할 수 밖에 없다.

한편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인해 양계산물의 수요자인 소비자의 식품 선호현상이 매우 급속하고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바뀌었고, 식품의 맛과 안전성이 식품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었으며 맛과 건강과 휴식을 추구하면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재래닭의 생산물은 우리의 입맛에 맞으면서도 우리의 고유한 자원에 대한 향수를 유발시키고 안전·건강지향적인 소비자의 다양한 식품선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에 편승하여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근래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재래닭의 수요는 전국 산골에서 그 명맥만을 간신히 유지해 오던 재래닭의 공급자원을 고갈시킬 위기마저 초래하고 있다.

재래닭의 이 같은 수급 불균형은 재래닭 식별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점을 이용하여 일부 부도덕한 유통업자들이 현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개량품종 중에서 우리의 재래닭과 외모가 비슷한 닭들을 값비싼 재래닭으로 둔갑시켜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하는 사례까지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 행위는 결국 소비자들의 재래닭에 대한 불신과 실망을 초래시킴으로서 우리의 전통적인 재래닭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재래닭을 우리의 고유한 가축 자원으로 유지·발전시켜서 소비자에게는 재래닭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고 양질의 전통적인 재래닭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농민 생산자에게는 새로운 소득작목이 될 수 있도록 육성시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양계 산업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래닭의 생산, 가공, 유통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사항들이 심도있게 연구·검토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구체적인 체계구축과 방향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래닭의 사육실태 그 생산물의 유통현황을 실증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재래닭의 산업화를 위한 사양 및 유통 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 · 조사의 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1차적으로 전국의 180개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전국에서 재래닭을 직접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한 다음 그들 농가를 지역(9개 도)과 사육규모 등에 따라 분리·정리하여 210개의 농가를 선정하고 이들 210개 농가를 조사요원이 직접 방문·면담하면서 준비된 설문지에 의거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1994년 7월부터 1994년 11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각 지역별로 수집된 조사서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의 결과 및 고찰

1. 조사 가구의 특성

조사가구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국 210개 조사농가 가운데 전남지역의 농가가 48호로서 전체의 22.9%, 경남이 30농가로서 14.3%, 충북이 29농가로서 13.8%, 강원이 25농가로서 11.9%, 제주가 23농가로서 10.9%, 경기도가 16농가로서 7.6%, 경북이 15농가로서 7.1%, 전북이 14농가로서 6.7%, 그리고 충남이 10농가로서 4.8%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조사농가에 대한 경영주의 연령은 40대가 32.9%(n=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30대로서 29%(n=61), 그리고 50대가 25.7%(n=54), 20대와 60대는 각각 4.3%(n=9)와 5.7%(n=12)의 비율로 나타났다.

경영주의 경영경력은 5년 이상된 농가가 41%(n=86)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3~4년의 사육경력을 가진 농가로 34.3%(n=72)를 차지하고 있음으로서 3년 이상의 재래닭 사육경력을 가진 농가가 75.3%(n=158)나 되었으며, 2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농가는 14.7%(n=31)에 불과하였다.

경영주의 학력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이 49.5%(n=104)로서 가장 높았고 대졸 이상도 14.8%(n=31)나 되었으며, 중졸은 20.9%(n=44), 그리고 국졸은 10%에 불과하였다.

경영주가 재래닭을 사육하기 시작하기 전의 직업을 살펴보면 농업에 종사해오면서 재래닭을 사육하기 시작한 농가는 58.0%(n=122)에 불과했고 상업을 하던 재래닭의 사육하기 시작한 농가가 15.7%(n=33)나 되었으며, 기타 직업을 가졌던 농가도 15.2%(n=32)나 되었다.

2. 재래닭의 사육실태

1) 규모별 농가 분포와 경영

〈표 1〉은 재래닭의 사육 규모별 농가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1〉를 통해서 재래닭의 사육규모별 농가분포를 살펴보면 210개의 조사농가 가운데 이 문항에 응답한 농가는 203개 농가이었으며, 응답한 203개 농가가 조사시에 사육하고 있던 재래닭의 총 사육수수는 362,793수로서 호당 평균 1,787수 이었다. 이들 203개 농가 중에는 최소 16수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최고 22,000수를 사육농가까지 있었다. 203개 농가중에서 100수 미만을 사육하는 영세규모의 사육농가가 19.8%(n=40), 100수에서 500수 미만을 사육하는 농가는 30%(n=61), 500수에서 1,000수 미만을 사육하는 농가는 11.3%(n=23), 그리고 1,000수에서 3,000수를 사육하는 농가는 20.2%(n=41)이었다. 3,000수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는 18.7%(n=38)에 불과하였다.

한편 〈표 2〉는 재래닭 사육의 경영형태와 사육목적, 사육방법 등을 나타낸 표이다. 경영의 형태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농가의 15.3%(n=32)가 단순히 자가소비를 위해 사육하고 있으며 38.1%(n=80)가 부업적 경영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반면에 전업적 경영을 하

표 1. 사육규모별 농가분포

(단위 : 호, %)

100수 미만		100~500수 미만		500~1000수 미만		1000~3000수 미만		3000수 이상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40	19.8	61	30.0	23	11.3	41	20.2	38	18.7

표 2. 재래닭 사육의 형태

(단위 : 호, %)

경영형태	자가생산소비		부업		겸업		전업		계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32	15.3	80	38.1	58	27.6	40	19.0	210	100.0
농가수	취미		육계생산		종란생산		육계+종란		계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25	12.0	116	55.8	5	2.4	62	29.8	208	100.0
사육방법	직접사육		고용경영		위탁경영		기타		계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206	98.0	2	1.0	-	-	2	1.0	210	100.0

고 있다고 응답한 농가는 19.0%(n=40)로서 <표 2>의 3,000수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수와(n=40) 일치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전체 조사농가의 과반수가 넘는 55.8%(n=116)의 농가가 육계생산을 목적으로 재래닭을 사육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종란 생산을 목적으로 재래닭을 사육하는 농가는 2.4%(n=5)에 불과했고 단순히 취미로 사육하는 농가도 12.0%(n=25)나 되었다. 육계 생산 판매와 종란 생산 판매를 동시에 이루고 있는 농가도 29.8%(n=206)나 되었다. 재래닭의 경영방법에 있어서는 경영형태나 사육목적과 관계없이 거의 모든 농가, 즉 98.0%(n=206)의 농가가 경영주가 직접 사육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는 곧, 3,000수 이상의 대규모 사육농가도 경영주 자신이 경영의 주체가 되는 가족적 경영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영형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우리나라 재래닭 사육농가의 대부분은 영세 부업적인 육계생산 경영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영의 전문화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육 시작시의 경영 조건

<표 3>은 현재 재래닭을 사육하는 농가가 재래닭을 처음 사육하게 된 동기를 정리한 표이다. <표 3>을 통해 재래닭을 처음 사육하기 시작한 동기를 살펴보면 “지도자나 전문가의 권유로 시작했다”는 농가는 26.7%(n=56), “책자나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아 사육을 시작했다”는 농가가 19.5%(n=41)로 나타났는 바,

표 3. 재래닭 사육의 동기

(단위 : 호, %)

재래닭을 처음 사육하게 된 동기	응답자수	비율
주위 사육자들의 권유로	36	17.2
지도자등 전문가의 권유로	56	26.7
책자 등 대중매체의 기사를 읽고	41	19.5
기 타	70	33.3
무응답	7	3.3
계	210	100.0

재래닭 사육동기에 지도자의 권유나 대중매체의 영향이 비교적 높게 미쳤음을 반영하였다. 이밖에도 “주위 사육자들의 권유로 재래닭을 사육하게 되었다”는 응답자도 17.2%(n=36), 그리고 기타 항목의 응답비율이 33.3%(n=70)나 됨으로서 재래닭의 동기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있었다.

<표 4>는 현재 재래닭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재래닭을 처음 사육하기 시작할 당시의 사육수수 및 투입자금의 규모, 그리고 과거에 양계 경험이 있었는지의 물음에 응답한 결과이다.

<표 4>에서 재래닭 사육경영을 처음 시작할 당시 사육규모별 농가의 분포를 살펴보면, 100수 미만으로 시작한 농가가 39.6%(n=82), 100이상 500수 미만의 규모로 시작한 농가가 31.9%(n=66), 그리고 500수 이상 1,000수 미만의 규모로 사육을 시작한 농가가 14.0%(n=29)로서 대부분(85.5%)의 농가가 영세한 규모로 사육을 시작했으며, 1,000수 이상으로 시작한 농가는 14.5%(n=30)에 불과했다. 경영시작시 투자

표 4. 사육시작시의 경영조건

(단위 : 호, %)

사육규모	100수 미만		100~500수 미만		500~1000수 미만		1000수 이상		계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82	39.6	66	31.9	29	14.0	30	14.5	207	100
투입자금	100만원 미만		100~500만원 미만		500~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계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88	42.3	81	38.9	18	8.7	21	10.1	208	100
양계경영의 경험	지식과 경험 없음		지식은 있으나 경험없음		지식과 경험 갖춘		기타		계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102	49.3	57	27.5	38	18.4	10	4.8	207	100

된 자금도 극히 영세하여 100만원 미만의 자금을 투입한 농가가 전체의 42.3%(n=88)나 차지하고 있으며, 1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의 범위의 자금을 투입한 농가는 38.9%(n=81), 그리고 1000만원 이상 투입한 농가는 10.1%(n=21)에 불과하였으며 투입된 자금의 조달도 대부분이 자기 자기에 의존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재래닭을 처음 사육하기 시작할 때의 경영주에 대한 양계경영의 경험과 지식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49.3%(n=102)의 농가가 양계경영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전혀 없이 시작하였으며 지식과 경험을 갖춘 농가는 18.4%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재래닭 사육경영의 시작 당시의 경영조건을 종합할 때, 우리나라 재래닭 사육은 대체로 농가의 철저한 영농계획에 의거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않고 막연히 대중매체(19.5%)나 주위 사육자들의 권고(17.2%)등의 영향을 받아 소규모, 소자본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사육규모별 재래닭의 수익성

(단위 : 호, 천원)

구분	100수 미만	100~500수	500~1000수	1000~3000수	3000수 이상	전체
농가수	26	33	19	39	35	152
호당 소득	1,050	2,930	4,845	10,612	32,802	13,719
수당 소득	13.7	16.6	8.3	6.4	5.2	8.8

¹⁾ 축협중앙회가 조사한 1994년도 일반 개량종의 산란계 수당 전국 평균 소득 2,284원에 비하여 재래닭의 수당 평균 소득이 월등히 높다.

3) 경영성과

〈표 5〉는 조사농가가 1993년도에 재래닭 경영을 통해서 얻은 호당 소득과 재래닭 수당 소득을 사육규모별로 분석한 표이다.

농가 호당 소득은 평균 1,371만 9천원이었으며 재래닭 수당 소득은 8,800원¹⁾으로서 일반 개량닭의 소득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육규모가 클수록 호당 소득 규모는 당연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래닭의 수당 소득은 사육규모가 클수록 낮게 나타났다. 조사 농가의 재래닭의 사육규모별 수당 소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0수 미만의 영세 규모의 사육농가에서는 13,700원, 100~500수 규모에서는 16,600원, 500~1000수 규모에서는 8300원, 1000~3000수 규모의 농가에서는 6,400원 그리고 3,0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6,400원 그리고 3,0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6,400원 그리고 3,000수 사육규모에

서의 수당 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0수 미만의 극히 영세농가 계층의 수당 소득은 100~500수 미만 규모 계층의 수당 소득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500수 이상 계층에서는 사육규모가 클수록 수당 소득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재래닭의 사육에 있어서 사육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자가에서 충당하는 생산요소 보다는 주요 생산요소인 사료나 노임 등의 외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기인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조사농가의 대부분이 경영주 자신에 의해 직접 경영되는 가족농 중심의 경영형태임을 고려할 때, 규모가 클수록 수당 소득이 낮은 이유는 대 규모 사육농가의 사육기술 부족과 조방적 경영에 의한 낮은 생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재래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체계의 개발과 보급은 재래닭을 사육하는 농가의 안정적인 수입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4) 경영상의 애로사항

〈표 6〉은 조사농가가 재래닭을 사육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을 응답한 결과이다.

〈표 6〉에서 보면 재래닭을 사육하는 농가의 38.8%(n=76)가 “생산물을 판매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본이 부족하여 애로를 느낀다”는 농가도 20.9%(n=41)나 되었다. “노동력이 부족해서 애로를 느낀다”는 농가와 “사료와 병아리 구입이 어려워 애로를 느낀다”는 농가는 다같이 9.2%(n=18)로 나타났는 바, 이는 대부분의 재래닭의 사육이 농가의 잉여노동력에 의한 부업적 복합영농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육농가나 규모도 아직까지 크게 확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응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표 4〉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재래닭을 사육하는 농가의 절반 정도가 재래닭사육과 관련된 경험과 기술이 없이 경영을 시작하였으며,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수당 생산성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부족하여 애로가 있다”는 농가는 13.2%(n=26)에 불과하였는 바, 이는 재래닭을 사육하는 농가 내부에 아직도 재래닭의 사양기술 체계가 정립되지 않고 전통적 사양방식으로 특별한 기술없이 사육할 수 있다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된 결과로 판단된다.

표 6. 경영상 애로사항

(단위 : 호, %)

구 분	응답자수	비 .율
기술 부족	26	13.2
자본 부족	41	20.9
노동력 부족	18	9.2
사료 및 병아리 구입	18	9.2
생산물 판매	76	38.8
기타	17	8.7
계	196	100

이와 같은 경영상의 애로사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래닭 경영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래닭의 수요개발을 통한 판매망 구축과 경영자금의 지원 계획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산성향상과 규모경제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사육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한 기술체계의 정립은 간과될 수 없는 것이다.

5) 재래닭 사육의 전망

〈표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당수(38.8%)의 농가가 재래닭을 사육하는 데 있어서 “생산물의 판매에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면서도 재래닭 사육의 전망에 대해서는 비교적 밝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표 8〉 그리고 〈표 9〉는 조사농가가 금후 재래닭의 사육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를 지역 및 경영자의 연령, 경영자의 경영경력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7〉에서 보면 응답자의 재래닭의 전망을 22.4%(n=47)가 “매우 밝게 본다”고 응답하였으며 47.2%(n=99)가 “밝게 본다”고 응답함으로써 전체의 약 70%가 재래닭 사육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에 “어둡게 본다”거나 “매우 어둡게 본다”는 부정적인 응답자는 5.2%(n=1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재래닭 사육전망을 “매우 밝게 본다”는 응답자가 영남지역의 경우 55.6%에 달하고 있으나 호남과 제주 지역은 각각 9.7%와 4.3%에 불과하다. “그저 그럴 것이다”는 중립적 응답을 보인 응답자도 호남의 경우

표 7. 지역별 재래닭 사육의 전망에 대한 응답 분포

(단위 : %)

구 분	경 기		호 남		충 청		영 남		강 원		제 주		계	
	응답 자수	비율	응답 자수	비율	응답 자수	비율	응답 자수	비율	응답 자수	비율	응답 자수	비율	응답 자수	비율
매우 밝게 본다	3	18.7	6	9.7	6	15.4	25	55.6	6	24.0	1	4.3	47	22.4
밝게 본다	9	56.3	27	43.5	19	48.7	14	31.1	13	52.0	17	73.9	99	47.2
그저 그렇다	4	25.0	25	40.3	9	23.1	5	11.1	5	20.0	5	21.8	53	25.2
어둡게 본다	-	-	4	6.5	2	5.1	1	2.2	1	4.0	-	-	8	3.8
매우 어둡게 본다	-	-	-	-	3	7.7	-	-	-	-	-	-	3	1.4
계	16	100.0	62	100.0	39	100.0	45	100.0	25	100.0	23	100.0	210	100.0

에는 40.3%나 되므로 호남 지역의 사육농가가 재래 닭의 사육전망을 비교적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경영규모의 확대

<표 8>과 <표 9>는 조사농가가 “앞으로 사육경영규

모를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를 지역과 경영자의 연령, 경영경력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앞의 <표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래닭 사육자의 59.7%가 경영에 필요한 자본부족(20.9%)과 생산물의 판매(38.8%)에 따른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응답

표 8. 지역별 경영규모의 확대여부에 대한 응답 분포

(단위 : 호, %)

구 분	경 기		호 남		충 청		영 남		강 원		제 주		계	
	응답 자수	비율	응답 자수	비율	응답 자수	비율	응답 자수	비율	응답 자수	비율	응답 자수	비율	응답 자수	비율
확대해 나가겠다	8	53.3	32	51.6	23	62.2	27	60.0	18	72.0	12	52.2	120	57.9
현재 규모로 유지하겠다	6	40.0	28	45.2	10	27.0	15	33.3	6	24.0	7	30.4	72	34.9
축소해 나가겠다	1	6.7	2	3.2	4	10.8	3	6.7	1	4.0	4	17.4	15	7.2
기타	-	-	-	-	-	-	-	-	-	-	-	-	-	-
계	15	100.0	62	100.0	37	100.0	45	100.0	25	100.0	23	100.0	207	100.0

표 9. 경영주의 연령별 경영규모의 확대여부에 대한 응답 분포

(단위 : 호, %)

구 분	40세 미만		40대		50세 이상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확대해 나가겠다	41	59.4	44	63.8	33	51.6
현재 규모로 유지하겠다	25	36.2	17	24.6	28	43.7
축소해 나가겠다	3	4.4	8	11.6	3	4.7
기 타	-	-	-	-	-	-
계	69	100.0	69	100.0	64	100.0

표 10. 경영규모의 확대의사 영향요인의 상관행렬표

구분	규모확대의사 (×1)	경영전망 (×2)	사육규모 (×3)	경영주연령 (×4)	경영주학력 (×5)	경영경력 (×6)
×1	1.0000					
×2	0.4930*	1.0000				
×3	0.1253**	0.2455*	1.0000			
×4	-0.0791**	-0.1882**	-0.1286**	1.0000		
×5	0.0645**	0.0344	0.0171	-0.0242	1.0000	
×6	-0.0293	-0.1560**	0.0275	0.2942*	-0.0457	1.0000

주)*: P < 0.01, **: P < 0.05

하면서도 57.9%(n=120)의 농가가 “경영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축소하겠다”는 농가는 7.2%=1(5)에 불과하였다.

경영규모의 확대 여부에 대한 견해는 조사지역이나 경영자의 연령 등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다만 50세 이상의 나이가 많은 계층에서 “현재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응답비율(43.7%)이 20~30대(36.2%)나 40대(24.6%)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을 뿐이다.

〈표 10〉은 경영주가 경영규모의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내외적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행렬표이다. 다만 여기서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규모확대 의사 변수와 사육전망에 대한 변수는 점수화²⁾하여 처리하였고 여타 변수는 실수를 적용하여 처리하였다.

〈표 10〉에서 살펴보면, 규모 확대의사(×1)와 사육전망(×2)과의 상관계수는 0.494로 분석되었는 바, 이는 사육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영주가 대체로 규모 확대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고 적극적이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이와 같은 반응 결과는 재래닭의 경영 및 유통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경영여건에서 기인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의 재래닭 사육규모(×3)와 규모확대의사(×1), 사육전망(×2)과의 상관계수는 크지 않지만 정의 상관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사육규모가 클수록 경영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더불어 규모 확대의사를 갖

는 농가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경영주의 연령(×4)과 경영경력(×6)은 사육규모 확대의사(×1) 및 사육전망(×2)과 부(-)의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경영경력이 많을수록 그 정도는 약하더라도 경영전망과 규모확대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영주의 학력(×5)과 사육규모 확대의사(×1) 및 사육전망(×2)은 정도가 약한(+)의 상관을 보임으로서 학력이 낮은 경영주보다는 높은 경영주가 전망을 밝게 보고 규모확대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3. 재래닭 생산물의 판매 실태

1) 생산물의 판매관리

〈표 11〉은 조사농가가 생산한 재래 육용닭과 계란의 판매처별 판매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육용닭은 생산 농가가 소매상 등에 직접 판매하는 농가가 68.9%(n=1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매상이나 수집상에게 판매하는 농가는 각각 4.7%(n=9)와 7.2%(n=14)로서 매우 낮게 나타났고, 기타 판매처를 통해 판매하는 농가의 비율이 19.2%(n=37)로 나타났다.

재래닭의 알은 소매점 등에 직접 판매하는 농가의 비율이 52.9%(n=73)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매상과 수집상에게 판매하는 농가는

²⁾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응답에는 1점,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에는 2점, “축소해 나가겠다”는 응답에는 3점을 배점하였으며 사육전망을 “매우 밝게 본다”는 응답에는 1점, “밝게 본다”는 응답에는 2점, “그저 그럴 것이다”는 응답에는 3점, “어둡게 본다”는 응답에는 4점 그리고 “매우 어둡게 본다”는 응답에는 5점을 배점하였다.

표 11. 생산물의 주요 판매처

(단위 : 호, %)

구 분	도매상		수집상		소매점		기타		계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육용계	9	4.7	14	7.2	133	68.9	37	19.2	193	100
계란	6	4.3	3	2.2	73	52.9	56	40.6	138	100

각각 4.3%(n=6)와 2.2%(n=3)로서 극히 미미하였고, 기타 음식점과 같은 다양한 판매처를 통해 판매하는 농가의 비율이 40.6%(n=56)로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응답 결과는 곧, 재래닭의 계육이나 계란의 판매경로와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생산 농민이 직접 판매처를 개발하고 찾아서 판매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래닭 생산물에 대한 유통체계 정립의 시급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 12〉를 통해 생산물의 가격결정 상황을 살펴보면, 생산물의 판매시 판매가격의 결정은 출하시 시장가격을 참조해서 판매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농가가 63.1%(n=128), 판매처와 사전에 계약하는 농가가 10.8%(n=22), 생산자 단체 등에서 결정하여 통보한 가격에 준하여 결정한다는 농가가 6.4%(n=13)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마치 생산농민이 가격을 직접 결정하는 자(price maker)의 입장에서 생산물의 판매가격 결정에 사육농가의 의사가 높게 반영되고 있는 듯한 왜곡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구매자가 제한되어 있는 구매자 과점시장 조건에서 거래교섭력이 약한 생산농민이 사실상 가격결정에 주도권을 가질 수 없으며, 가격의 협상이란 결국은 구매자가 요구하는 가격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는 노력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육용 재래닭의 판매

조사농가가 재래닭을 육용으로 판매할 때 육용으로 판매하는 재래닭의 출하수량은 대개 16~20주 정도로서 이 때의 수당 평균체중은 1.5~2.0kg 으로 나타났다.

〈표 13〉에서 재래닭을 육용으로 육성하여 판매할 때 육용계에 대한 판매가격의 결정방법을 살펴보면, “체중이나 품질에 관계없이 수당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농가가 74.9% (n=152)로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품질에 관계없이 체중만을 고려하여 체중 kg당 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한다”는 농가는 8.9%(n=18), 그리고 “체중과 품질에 따라 kg당 가격을 차등 결정한다”는 농가는 6.9%(n=14)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품질이나 체중을 고려하지 않고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편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재래닭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장애요인이 됨으로써 소

표 13. 육용으로 육성 판매시 계군의 판매가격 결정 근거

(단위 : 호, %)

구 분	응답자수	비율
체중이나 품질에 관계없이 수당 가격을 결정	152	74.9
품질에 관계없이 체중에 따라 kg당 가격 결정	18	8.9
체중및 품질에 따라 kg당 가격을 결정	14	6.9
기 타	19	9.3
계	203	100.0

표 12. 생산물의 판매가격결정

(단위 : 명, %)

생산물의 판매가격 결정방법	응답자수	비율
판매처와 사전계약	22	10.8
출하시 시장가격을 참조해 판매처와 협의결정	128	63.1
생산자 단체등에서 결정 통보	13	6.4
기 타	40	19.7
계	203	100.0

득증대에 따라 날로 고품질의 재래닭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없음은 물론 재래닭의 품질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서 재래닭의 사육을 지원하고 육성시킬 수 있는 명분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체중과 품질을 고려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래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생산자인 농민과 유통업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종란 생산능력과 알의 판매

조사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재래닭의 평균 초산일령은 165일로 나타났으며, 연 평균산란율은 56.1%로서 일반 산란계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달걀 개당 평균 무게는 50 g 정도이었다.

〈표 14〉는 농가자체에서 종란으로 쓰지 않는 달걀을 판매하는 방법을 나타낸 표이다. 〈표 18〉에서 살펴보면 “재래종란으로 고가에 판매한다”거나 “수정란으로 고가에 판매한다”는 농가는 각각 21.1%(n=35)와 6.0%(n=10)에 불과하였고, 36.2%(n=60)의 농가가 “식란의 용도로 일반 난가에 판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가 소비하거나 기타 판매처를 선택하는 농가도 36.7%(n=61)에 달했다.

한편 〈표 15〉를 통해 식란으로 판매시 계란의 처리 정도를 살펴보면 세란하여 선별 포장해서 판매하는 농가는 4%(n=6), 세란·선별·포장은 물론 상표까지 부착해서 판매하는 농가는 2.6%(n=4)에 불과하였다. 대부분의 농가(51.0%, n=77)가 산란된 그대로 증량만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표 16〉을 통해 살펴보면 재래닭의 계란을 판매하고 있는 농가의 92.9%(n=118)가 재래종 난가와 일반 난가가 차등형성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반 난가와 동일하게 형성되어도 된다는 농가는

표 14. 종란으로 쓰지 않은 달걀의 판매방법
(단위 : 호, %)

구분	응답자수	비율
식란으로 일반난가에 판매	60	36.2
재래종란으로 고가에 판매	35	21.1
수정란으로 고가에 판매	10	6.0
기타	61	36.7
계	166	100

표 15. 식란으로 판매시 계란의 처리
(단위 : 호, %)

구분	응답자수	비율
산란된 그대로 증량선별 판매	77	51.0
세란 선별 포장해서 판매	6	4.0
세란 선별하여 포장하고 상표첨부해서 판매	4	2.6
기타	64	42.4
계	151	100.0

표 16. 재래종 난가와 일반 난가가 차등 형성되어야 하는 정도
(단위 : 호, %)

구분	응답자수	비율
일반 닭의 난가와 동일해야 한다	9	7.1
일반 닭의 난가보다 10% 정도 고가여야 한다	12	9.5
일반 닭의 난가보다 20% 정도 고가여야 한다	29	22.8
일반 닭의 난가보다 30% 정도 고가여야 한다	77	60.6
계	127	100

7.1%(n=9)에 불과했다. 한편 재래종 난가와 일반 난가와 차등 정도는 재래종 난가가 일반난가와 비교해서 30% 이상 높은 가격이어야 한다고 응답한 농가는 6%(n=7)를 차지하고 있으며, 22.8%(n=29)의 농가는 20%이상의 고가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재래닭의 낮은 생산성에 따른 보상심리의 결과에 기인된 응답으로 판단되지만 재래닭의 계란이 일반 계란과 비교하여 소비자의 영양이나 건강 등을 위한 특별한 성분의 차별화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러한 가격형성에 대한 요구나 바램은 경제적 합리성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제성 지향적인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재래닭 계란의 영양적 성분 규명을 위한 연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계란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재래닭에 대한 사육의 현황과 그 생산물의 판매 실태를 살펴보았는 바, 이를 요약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 1) 조사농가의 호당 평균 사육수수는 1,787수이고, 전 조사농가의 50% 정도가 자가소비 또는 부업 경영의 목적으로 500수 미만을 사육하고 있으며, 3,000수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의 농가는 19%에 불과했다.
- 2) 재래닭의 사육은 대체로 농가의 철저한 영농계획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닭을 사육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도 갖추지 않고 대중매체(19.5%)나 기존의 주변 사육자들의 권유(17.2%) 등에 영향을 받아 소규모, 소자본으로 시작되었다.
- 3) 재래닭 사육농가의 호당 연간 소득은 평균 13,719천원 이었으며 재래닭의 1수당 소득은 8,800원으로서 일반 산란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한편 사육규모가 클수록 사육 수당 소득은 오히려 낮게 나타났는 바, 이는 대규모 사육농가라 할지라도 사육기술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며 경영관리 또한 조방적으로 이루어진데서 기인된 낮은 생산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 4) 재래닭을 사육하는 농가의 38.8%가 생산물을 판매하는데 가장 큰 애로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0.9%가 자본이 부족해서 애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금후 재래닭 사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재래닭의 수요개발을 통한 판매망의 구축과 경영자금의 지원계획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 5) 현재 재래닭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약 70% 재래닭의 사육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약 60%의 농가는 금후 경영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응답함으로써 재래닭에 대한 기술 및 유통체계의 확립과 지속적인 수요 개발 등이 전제된다면 재래닭은 농가소득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6) 재래닭의 계속이나 계란의 판매경로와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산농민이 직접 판매처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판매가격은 판매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유통 및 가격구조하에서는 대량생산이 이루어지고 공급이 과잉될 경우 상대적으로 농가의 거래 교섭력이 약하고 가격의 폭락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 7) 재래닭을 육용으로 판매하는 평균 출하 주령은 16~20주 정도이고 이때의 수당 평균 체중은 1.5~2.0kg이며 이 경우 가격결정은 체중이나 육질에 관계 없이 수당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9) 재래닭의 평균 초산일령은 165일, 연평균 산란율은 56.1%에 불과했으며, 자가에서 종란으로 이용하지 않는 달걀은 대부분 일반 식란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계란을 판매하고 있는 농가의 92.9%가 재래종의 난가와 일반 난가는 차등형성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10)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할 때 우리나라 재래닭 산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첫째, 재래닭 사육에 필요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보급함은 물론 적정한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의 규모화를 유도하여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둘째, 재래닭 고기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개발과 체계적인 판매망을 구축시켜 재래닭 사육에 대한 장래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재래닭 생산물에 대한 식품적·영양적 가치 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재래닭 생산물의 차별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색인: 재래닭, 생산비, 생산성, 생산물의 차별화)

인용문헌

- 농촌진흥청 1990 특수가축사육, 농촌진흥청 표준영농교본-72.
- 오홍록, 박중수 1991 꿩고기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시장성 및 경영전략,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 18 127-139.

축협중앙회 1995 1994년도 축산물 생산비 조사보고,
95-1, 축협중앙회.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USDA 1990
Pheasant Cooperation Stocking Program,

ODNR USA Publication No. 83.

Beierlin, JG 1986 Principle of Agribusiness Man-
agement, Reston Book Co., Princeton Hall,
USA.